

영양교사의 교직 수행실태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도

유지은¹ · 이영은² · 박은혜²

¹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²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Actual Status of Task Performance and Need for System Improvement for Nutrition Teachers

Ji Eun You¹, Young Eun Lee², and Eun Hye Park²

¹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²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atus of task performance and working conditions for nutrition teachers in order to determine new ways to improve the current nutrition system and increase job satisfaction among teachers. From the 14th of July to the 26th of September 2014, email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and collected from 311 nutrition teachers nationwide, including teachers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ver 90% of nutrition teachers indicated that their work was demanding. In particular, 63.5% of nutrition teachers at high schools worked more than 40 hours of overtime per month. Second, 73% of nutrition teachers provided nutrition education, but the percentage significantly decreased at upper levels of school. Nutrition teachers had difficulties teaching due to the absence of standard teaching materials and a lack of time due to excessive work. Teachers also wanted 30 hours of job training once per year during their vacation organized by the regional Department of Education. Third, around half of the nutrition teachers considered that promotion and transfer professions are necessary for systematic foodservice and education. An additional allowance was demanded by nutrition teachers at schools that serve two or three meals per day. Considering the results, alleviating the workload of nutrition teachers and more time preparing nutrition classes for student are required. Fair evaluation of job performance that considers work conditions of nutrition teachers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foodservice, task performance, nutrition teacher, system improvement, workload

서 론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식문화 및 식행동의 변화로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및 소아비만, 당뇨 등 생활습관성 질병의 발병률이 급증하여 생활교육으로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1).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축소되면서 과거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식생활 교육이 학교급식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2).

일본에서는 아동기의 적절한 식생활 관련 교육을 위해 학교에 배치된 영양직원의 업무 범위가 식사교육까지 포함하도록 2005년 영양교사제도가 도입되었다(3).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에 관한 건의를 시작으로, 이후 여러 선행연구와 토론회를 통한(4) 영양교육의 중

요성과 영양교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제의가 있었다(5). 그 결과 초·중등 교육법 21조(6) 및 학교급식법 제7조(7)를 근거로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영양교사 배치의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영양교사가 학교 내에서 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기존의 급식 관리에 치중하고 영양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영양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8,9) 영양교육에 대해 95% 이상의 교장, 학부모, 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85% 이상이 영양교사가 영양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사되었다. 영양교육에 대해 높은 필요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육이 낮은 비율로 시행되고 있었다.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교육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했으나(10)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직접 영양교육을 하는 비율은 36.8%(11), 강원도지역의 경우 26.6%(12), 전북지역의 경우 10% 미만으로 8.2%와 9.4%의 비율로 조사되었다(13). 학교 유형에 따라 영양교사로서 직무중요도가 높게 인식되는 영역과 직무수행도의 불일치를 보였는데, 가령 영양교사로서 중요도가 높게 인식되는 영양교육에 해당하는

급식시간 순회지도, 학생과 학부모 영양교육의 항목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행도가 고등학교보다 유의하게 높게 조사되었다(14).

영양교사의 업무 만족도는 영양교사가 되기 이전 기대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영양교사가 되기 이전에는 영양교육, 영양상담에 있어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학교 내에서 영양교사에 대한 인식이 급식 관리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만 치중되는 학교 실정에 따른 결과였다(15). 또한 영양교사의 직무 불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학교의 인사과정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먼저 교원성과급의 경우 영양교사가 학교에서 부장교사의 직위나 담임교사가 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사와 똑같은 평가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어 성과급 등급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기존 영양교사의 인사승진 영역에서 영양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불만족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15,16).

그동안의 연구들은 식생활 교육시행 현황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영양교사의 교직 수행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영양교사직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영양교사의 요구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무하는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실태 및 근무환경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영양교사의 교직 수행 및 제도개선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학교 유형별로 파악하여 영양교사직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급과 지역별(특별시 및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영양교사 배치 현황을 고려하여 비율에 따라 대상을 표집 하였다. 2014년 7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e-mail 및 업무 메일을 이용하여 65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173부(회수율 26.4%)를 회수하였다. 또한 2014년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영양사를 대상으로 주최한 영양교사 1급 자격연수 및 영양교사 직무연수에 직접 방문해서 138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138부(회수율 100.0%)를 회수하여 수집된 설문지 311부 모두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학교급과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설문지 구성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5,17,18)에 사용된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사항, 영양교사의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에 대한 인식, 식생활

교육 운영 실태 및 인식, 영양교사의 연수실태 및 인식,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에 대한 인식, 영양교사 수당 및 성과급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의 통계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Ver.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일반사항, 영양교사의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에 대한 인식, 식생활교육 운영 실태 및 인식, 영양교사의 연수실태 및 인식,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에 대한 인식, 영양교사 수당 및 성과급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학교 유형별에 따른 유의성 검증을 위해 χ^2 -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311명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 근무자'가 118명(38.0%), '중소도시 근무자' 76명(24.4%), '농어촌 근무자' 117명(37.6%)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30대 미만'이 37명(11.9%)이었고 '30~39세'가 61명(19.6%), '40~49세'가 167명(53.7%)으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이 46명(14.8%)이었다. 최종학력은 '학사졸업'이 182명(58.5%)이었고 '대학원 이상'은 129명(41.5%)이었다. 영양교사 경력은 '3년 미만'이 27명(8.7%)이었고 '3~4년'은 51명(16.4%), '5~6년'은 89명(28.6%), '7년 이상'은 144명(46.3%)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위생직 경력은 70명(22.5%)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5년 미만'이 31명(10.0%), '5~9년'이 28명(9.0%), '10~14년'이 116명(37.3%), '15~19년'이 39명(12.5%), '20년 이상'이 27명(8.7%)으로 나타났다. 재직 학교 유형은 '초등학교'가 183명(58.8%)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54명(17.4%), '고등학교' 74명(23.8%)이었다. 학교 형태는 '도시형'이 185명(59.5%), '농어촌형' 123명(39.5%), '도서벽지형' 3명(1.0%)이었고, 1일 급식제공 횟수로는 '1식 제공'이 235명(75.6%), '2식 제공'이 16명(5.1%), '3식 제공'이 60명(19.3%)이었다. 또한 급식인원은 조식이 평균 140명, 중식이 평균 677명, 석식이 평균 377명이었다.

영양교사의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에 대한 인식

영양교사의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에 대한 인식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영양교사의 업무량에 대한 인식은 '매우 과중하다'가 199명(6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소 과중하다' 100명(32.1%), '적정하다' 12명(3.9%)으로 나타나 96.1%의 교사들이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Yang(17)의 연구에 의하면 영양교사로서 느끼는 직무의 양이 '과중하다'가 95.4%, '적정하다' 4.6%, '적다'는 한 명도 응답하지 않아 대다수(95.4%)의 영양교사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N (%)=311 (100.0)
		Total
Working area	Metropolitan city	118 (38.0)
	Small and medium-sized city	76 (24.4)
	Farming and fishing village	117 (37.6)
Age	<30	37 (11.9)
	30~39	61 (19.6)
	40~49	167 (53.7)
	≥50	46 (14.8)
Education level	University	182 (58.5)
	Graduate degree over	129 (41.5)
Working experience as a nutrition teacher (years)	<3	27 (8.7)
	3~4	51 (16.4)
	5~6	89 (28.6)
	≥7	144 (46.3)
Working experience as a food hygiene officer (years)	None	70 (22.5)
	<5	31 (10.0)
	5~9	28 (9.0)
	10~14	116 (37.3)
	15~19	39 (12.5)
Type of school	≥20	27 (8.7)
	Elementary school	183 (58.8)
	Middle school	54 (17.4)
	High school	74 (23.8)
Type of foodservice	Urban	185 (59.5)
	Rural	123 (39.5)
	Island and isolated area	3 (1.0)
The number of meal servings per day	1	235 (75.6)
	2	16 (5.1)
	3	60 (19.3)
Operation status	Self management	273 (87.8)
	Commissary management (cooking)	36 (11.6)
	Commissary management (not cooking)	2 (0.6)
Average servings per day	Breakfast	140.44±63.21 ¹⁾
	Lunch	677.16±419.11
	Dinner	377.65±274.87

¹⁾Mean±SD.

현재 직무의 양이 과중하다고 인식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학교 유형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매우 과중하다’라는 응답이 60% 미만이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85% 이상으로 나타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유형별 업무량 인식 분석 결과 기대 수치가 5 이하인 cell이 전체 cell의 20%를 넘어 학교 유형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업무량에 대한 결과 값이 비슷하게 조사된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하여 고등학교와 업무량 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의 영양교사가 유의적으로 업무량에 대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01$). 이와 같은 결과는 영양교사의 초과근무 시간과도 연결될 수 있다. 월별 초과시간에 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2명(20.0%)에 이르는 영양교사들이 ‘월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

교의 경우에는 ‘월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47명(6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 7.1%, 중학교 3.7%와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와 같이 일일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 업무실태 연구(19)에 의하면 업무 수행실태에서 1식에서는 77.0%가 초과근무 없이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나, 2~3식은 5.8%를 제외한 94.2%의 응답자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 84.7%가 학교 이외 가정에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추가업무 수행에 의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는 5.6%에 불과했고, ‘지원을 받지 않는다’가 94.4%로 나타나 2~3식 수행에 의한 보상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9). 아침·저녁급식과 방학 중 급식 모두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 시간이므로 방과 후 보충수업 수당에 따르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2~3식 제공으로 과중하게 부과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보조

Table 2. The awareness of work intensity and difficulties for nutrition teachers

		Total (N=311)	Type of school			χ^2 -value /F-value
			Elementary (N=183)	Middle (N=54)	High (N=74)	
Work intensity	Very heavy	199 (64.0)	108 (59.0)	28 (51.9)	63 (85.1)	-
	A bit heavy	100 (32.1)	70 (38.3)	22 (40.7)	8 (10.8)	
	Proper	12 (3.9)	5 (2.7)	4 (7.4)	3 (4.1)	
	A bit moderate	0 (0.0)	0 (0.0)	0 (0.0)	0 (0.0)	
	Very moderate	0 (0.0)	0 (0.0)	0 (0.0)	0 (0.0)	
Elementary+Middle (N=237)						
Work intensity	Very heavy	199 (64.0)	136 (57.4)		63 (85.1)	20.554***
	A bit heavy	100 (32.1)	92 (38.8)		8 (10.8)	
	Proper	12 (3.9)	9 (38.0)		3 (4.1)	
Time of working overtime (hours/ month)	<10	150 (48.2)	109 (59.6)	30 (55.6)	11 (14.9)	139.6427***
	10~19	53 (17.0)	33 (18.0)	10 (18.5)	10 (13.5)	
	20~29	37 (11.9)	25 (13.7)	12 (22.2)	0 (0.0)	
	30~39	9 (2.9)	3 (1.6)	0 (0.0)	6 (8.1)	
	≥40	62 (20.0)	13 (7.1)	2 (3.7)	47 (63.5)	
Works which are required to be transferred or reduced	Support for foodservice cost and milk program	109 (35.1)	61 (33.5)	20 (37.1)	28 (37.9)	13.999
	Reporting budget execution and budget settlement	83 (26.7)	42 (23.1)	14 (25.9)	26 (35.1)	
	Required materials and reports	75 (24.1)	53 (29.1)	8 (14.8)	14 (18.9)	
	Facility management	27 (8.7)	17 (9.3)	6 (11.1)	4 (5.4)	
	Human resource management	16 (5.1)	8 (4.4)	6 (11.1)	2 (2.7)	
Awareness of work difficulties	Human resource management	4.03±2.48 ¹⁾	4.09±3.15	3.89±0.88	3.99±0.90	0.16
	Nutrition education	3.83±2.43	3.97±3.08	3.59±0.90	3.64±0.90	0.81
	Facility management	3.76±0.81	3.81±0.84 ^a	3.85±0.66 ^a	3.55±0.83 ^b	3.08*
	Nutrition consultation	3.72±0.82	3.90±0.81 ^a	3.48±0.69 ^b	3.45±0.81 ^b	11.76***
	Budget management	3.59±0.86	3.51±0.89	3.81±0.73	3.62±0.82	2.78
	Hygiene management	3.52±0.83	3.58±0.87	3.37±0.68	3.50±0.82	1.38
	Cooking process management	3.35±0.78	3.34±0.79	3.37±0.78	3.36±0.79	0.05
	Plan menus and nutrition management	3.30±0.87	3.29±0.90	3.37±0.88	3.28±0.80	0.20
Document management	3.24±0.80	3.24±0.85	3.44±0.69	3.11±0.71	2.81	

* $P<0.05$, *** $P<0.001$.¹⁾Mean±S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인력의 추가배치 등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Yeo(20)의 연구에서는 급식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95.0%로 나타났으며, 66%가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응답자의 94.2%는 업무 시간에 비해 부과되는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영양교사가 근무시간 내에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영양교사의 직무에 대하여 학교급식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21)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일선 학교에 혼란을 주고 있다. 명확한 업무의 분석과 제시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부당한 행정업무 등이 영양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위생관리 및 식생활지도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업무이관 및 직무감축이 필요한 분야는 '급식비 지원 및 우수급식 지원' 109명(35.1%), '예산 집행결과 보고 및 정산' 83명(26.7%), '각종 요구자료 및 보고자료' 75명(24.1%)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업무이관 및 직무감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학교 유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Yang(17)의 연구에 의하면 직무 개선 및 감축이 필요한 영역으로 '행정서류 간소화'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급식공문서 감축'이 25.0%, '잡무 이관'이 19.7%로 나타나 행정과 관련된 업무의 감축을 높게 요구하였다. 따라서 영양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들로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으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이관 및 감축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많은 문서 및 행정서류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운영에 수반되는 많은 업무를 영양교사 혼자 모두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 내 적절한 업무분담과 현재 영양교사가 느끼고 있는

업무 부담에 대한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양교사직 수행에 따른 업무 난이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쉽다' 1점, '매우 어렵다' 5점을 부여하였다. 모든 문항이 3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는데 특히 '인력관리' 문항이 평균 4.03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그 다음 '식생활교육'(평균 3.83), '급식시설관리'(평균 3.76), '영양상담'(평균 3.72), '예산관리'(평균 3.59), '위생관리'(평균 3.52), '조리작업관리'(평균 3.35), '식단 작성 및 영양관리'(평균 3.30), '급식공문서관리'(평균 3.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양교사가 인식하는 업무 중 가장 어려운 영역이 '영양교육'이었으며 다음은 '영양상담'이라고 응답한 Yang(17)의 연구 결과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 '영양상담' 문항의 경우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중학교, 고등학교 영양교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의 업무 난이도를 느끼고 있었다($P < 0.001$). Kim과 Khil(14)의 보고에 따르면 학교 유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영양교육 수행도가 평균 3점 이상, 고등학교의 경우 2점대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영양상담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학교에서의 영양상담에 대한 의견으로 상담프로그램 및 자료의 부족 및 영양상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어(22,23) 영양상담이 적극적으로 수행되면서도 이에 대한 영양교사의 업무 난이도를 낮추기 위한 해결책으로 상담 프로그램 및 자료를 마련하고 영양상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식시설관리'에서는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영양교사의 식생활교육 운영 실태

영양교사의 식생활교육 운영 실태에 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식생활교육은 수업 등을 통한 직접교육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자 중 277명(73.0%)이 식생활교육 시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89.6%의 응답자가 식생활교육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중학교 66.7%, 고등학교 36.5%의 응답자가 식생활교육 시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식생활 교육 시행 경험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P < 0.001$). 경상남도 지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학교 유형별 직접적인 식생활교육 시행 여부를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9.8%가 시행하고 있었으며, 중학교에서는 15.0%, 고등학교에서는 한 명도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20). Jeon(22)의 연구에서도 직접교육 실시율이 초등학교 52.4%, 중학교 38.1%,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4.8%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선행연구(23)에서 영양 및 식생활교육이 어려운 이유로 과중한 급식 및 행정업무가 가장 높게 지적되어 학교 유형별로 식생활교육 시행에 차이를 보

이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2식 이상의 학교급식 운영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의 어려움과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교육실시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식생활교육 시행 경험이 있는 교사 중 2014년 현재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는 비율은 초등학교 87.8%, 중학교 77.8%, 고등학교 74.1%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식생활교육 시행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시행 시간을 다중응답이 가능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교육을 한 경우가 74.9%로 가장 높았고, '기술·가정·보건·체육 등의 관련 교과시간'을 통해 교육한 경우가 37.0%, '방과 후 활동 및 특강 형식'이 7.5%, '기타'가 0.9%로 나타났다. Kim(24)의 연구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을 통해 교육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Yeo(20)의 연구에서는 '제량활동 시간'과 '특별활동 시간'이 각 34.3%로 높게 응답하여 대부분의 식생활교육이 관련 교과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생활교육이 누구의 요청으로 시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영양교사 본인'의 요청으로 식생활교육을 했다는 응답이 70.0%로 가장 높았으며, '교장과 교감'의 요청에 의한 경우가 26.9%, '타 교사(교과교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가 16.7%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식생활교육이 영양교사의 필요와 요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Choi(25)의 연구에서는 교장의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사용하는 교육방법은 '이론 강의'가 68.7%로 가장 높았고, '실습 및 실험'이 57.7%, '동영상 및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 50.7%, '게임·노래·역할극 등의 활동중심교육'이 20.7%로 나타났다. Kim(24)과 Kim 등(26)의 연구에서도 식생활교육 시 수업형태가 실험과 실습을 병행한다는 결과가 높게 응답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교육자료 수집 경로로는 '정부산하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자료 및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한영양사협회와 영양사 전문 사이트'의 사용률도 50.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료 영양교사'에게 자료는 얻는 경우도 41.9%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부 또는 교육청 자료 및 사이트' 29.1%, '관련교과서' 25.1%, '인터넷 포털' 23.4%, '전공서적' 14.5%, '신문·잡지·TV' 등이 7.5%로 나타났다. Jeong(27)의 연구에서는 '학교 영양교사회 자체 제작자료 및 대한영양사협회'가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Kim(24)의 연구에서는 '영양사 전문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교사가 26.8%로 가장 많았다. 또한 Kim 등(26)의 연구에서는 '동료 영양교사와의 정보교환'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다양한 정보 제공 사이트 개발과 더불어 교육 당국 차원에서 표준화된 교육자료 및 지침서를 만들어 체계화된 식생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Table 3. The operational status of nutrition education

		Total (N=311)	Type of school			χ^2 -value /F-value
			Elementary (N=183)	Middle (N=54)	High (N=74)	
Nutrition education experience	Have experienced	227 (73.0)	164 (89.6)	36 (66.7)	27 (36.5)	76.7758***
	Never experienced	84 (27.0)	19 (10.4)	18 (33.3)	47 (63.5)	
Current status of nutrition education	Currently conducting	192 (84.6)	144 (87.8)	28 (77.8)	20 (74.1)	4.8703
	Currently not conducting	35 (15.4)	20 (12.2)	8 (22.2)	7 (25.9)	
When the nutrition education is performed ¹⁾	Creativity activity class	170 (74.9)	120 (56.3)	28 (58.3)	22 (75.9)	—
	Relevant class (e.g.: P.E, health education, technology-home economics)	84 (37.0)	72 (33.8)	8 (16.7)	4 (13.8)	
	After school activity class	17 (7.5)	9 (4.2)	8 (16.7)	0 (0.0)	
	Special lecture	17 (7.5)	12 (5.7)	4 (8.3)	1 (3.4)	
	Others	2 (0.9)	0 (0.0)	0 (0.0)	2 (6.9)	
How the nutrition education is performed ¹⁾	Lecture	156 (68.7)	112 (32.5)	26 (37.1)	18 (36.7)	—
	Practice and experiment	131 (57.7)	99 (28.7)	24 (34.3)	8 (16.3)	
	Education with videos or internet	115 (50.7)	87 (25.2)	12 (17.1)	16 (32.7)	
	Education with activities (e.g.: games, singing, role play)	47 (20.7)	36 (10.4)	6 (8.6)	5 (10.2)	
	Discussion	7 (3.1)	7 (2.0)	0 (0.0)	0 (0.0)	
	Others	8 (3.5)	4 (1.2)	2 (2.9)	2 (4.1)	
How the teaching materials are acquired ¹⁾	Webpag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e.g.: FD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38 (60.8)	104 (25.8)	20 (21.8)	14 (18.0)	—
	Webpage of Korean Dietetic Association and Dietitian	114 (50.2)	87 (21.6)	14 (15.3)	13 (16.6)	
	Co-worker (nutrition teacher)	95 (41.9)	81 (20.1)	8 (8.7)	6 (7.7)	
	Webpage of Education Office and Ministry of Education	66 (29.1)	40 (10.0)	12 (13.0)	14 (18.0)	
	Related class text books (e.g.: P.E, health education, technology-home economics)	57 (25.1)	45 (11.2)	8 (8.7)	4 (5.1)	
	Internet portal sites	53 (23.4)	30 (7.4)	12 (13.0)	11 (14.1)	
	Books	33 (14.5)	9 (2.2)	12 (13.0)	12 (15.4)	
	Newspaper, magazine, TV	17 (7.5)	7 (1.7)	6 (6.5)	4 (5.1)	
People who requested the nutrition education ¹⁾	Nutrition teacher	159 (70.0)	123 (58.8)	20 (45.4)	16 (48.5)	—
	Principal or vice-principal	61 (26.9)	41 (19.6)	10 (22.7)	10 (30.3)	
	Teachers of other subjects	38 (16.7)	25 (12.0)	8 (18.2)	5 (15.1)	
	Education office	26 (11.5)	20 (9.6)	4 (9.1)	2 (6.1)	
	Parents	2 (0.9)	0 (0.0)	2 (4.6)	0 (0.0)	

*** $P<0.001$. ¹⁾Multiple responses.

영양교사의 식생활교육 인식

영양교사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인식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영양교사들이 생각하는 식생활교육 시행의 어려운 점으로는 ‘표준화된 교육자료 및 지침서 부재’(평균 4.31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평균 4.30점)과 ‘행정·재정적 지원의 부족’(평균 4.01점), ‘학교장 및 타 교사들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평균 3.88점), ‘시수확보의 어려움’(평균 3.86점)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양교사의 자신감 부족’은 평균 2.91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영양교육 활동의 어려움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22, 24, 26, 27), 급식업무의 부담으로 인한 수업 준비가 어렵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부족하며 영양교육이 정규교육과정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영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인력 배치, 급식업무 간소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영양교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각 교과에 산재하여 있는 식생활교육에 관한 내용을 체계화한 표준화된 지침서와 교육과정의 개발이 요구된다. 식생활교육 시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학교유형에 따라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P<0.001$), ‘학교장 및 타 교사들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P<0.05$), ‘시수확보의 어려움’($P<0.001$)에 대한 문항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업무과다로 인한 교육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업무강도가 가

Table 4. The awareness of nutrition teachers' nutrition education

	Total (N=311)	Type of school			χ^2 -value /F-value	
		Elementary (N=183)	Middle (N=54)	High (N=74)		
Difficulties in nutrition education ¹⁾	Absence of standard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ctions	4.31±0.80	4.29±0.89	4.30±0.60	4.36±0.71	0.24
	Excessive work with regard to nutrition education	4.30±0.81	4.23±0.83 ^b	4.04±0.89 ^b	4.65±0.56 ^a	10.96 ^{***}
	Lack of administrative·financial supports from schools	4.01±0.95	3.96±1.02	4.00±0.78	4.12±0.88	0.75
	Lack of awareness of a principal and other teacher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nutrition education	3.88±0.98	3.77±1.03 ^b	4.11±0.88 ^a	3.99±0.88 ^{ab}	3.23 [*]
	Difficulties in securing class hours	3.86±1.13	3.67±1.14 ^b	4.37±0.96 ^a	3.97±1.09 ^b	9.06 ^{***}
	Lack of nutrition teachers' confidence	2.91±1.02	2.88±1.01	2.93±0.87	2.97±1.12	0.23
	How to develop nutrition education ²⁾	Assigning nutrition teachers considering type of foodservice and the number of students	4.72±0.53	4.70±0.59	4.78±0.42	4.74±0.44
Reduced workload and improved working condition		4.72±0.54	4.73±0.58 ^a	4.56±0.50 ^b	4.80±0.44 ^a	3.33 [*]
Assigning nutrition experts		4.65±0.62	4.58±0.70	4.74±0.52	4.76±0.43	2.69
Assigning nutrition teachers in every school		4.65±0.65	4.72±0.63	4.52±0.69	4.59±0.66	2.34
Opening curriculum and developing systematic courses of study		4.64±0.66	4.64±0.73	4.67±0.55	4.62±0.54	0.07
Enhancing the awareness of school member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nutrition education		4.54±0.59	4.51±0.65	4.56±0.50	4.58±0.50	0.37
Conducting systematic education for nutrition teachers by a local Education Office.		4.30±0.81	4.31±0.86	4.19±0.78	4.36±0.67	0.80
Having a nutrition education room in a school.		4.28±0.79	4.31±0.83	4.26±0.71	4.22±0.75	0.41
Ideal class time for nutrition education	Fixed class hours guaranteed by legal basis	4.25±0.89	4.22±0.96 ^b	4.52±0.57 ^a	4.11±0.88 ^b	3.50 [*]
	Relevant class (e.g.: P.E, health education, technology-home economics)	146 (47.0)	106 (57.9)	22 (40.7)	18 (24.3)	
	Creativity activity class	140 (45.0)	72 (39.3)	28 (51.9)	40 (54.1)	42.1343 ^{***}
	Special lecture	11 (3.5)	1 (0.6)	2 (3.7)	8 (10.8)	
	After school activity class	10 (3.2)	2 (1.1)	2 (3.7)	6 (8.1)	
Others	4 (1.3)	2 (1.1)	0 (0.0)	2 (2.7)		
Proper nutrition education hours considering workload of both foodservice management tasks and nutrition education (hours/month)	4.33±4.15	3.60±2.81 ^b	5.78±5.19 ^a	5.08±5.52 ^a	7.58 ^{***}	

* $P<0.05$, *** $P<0.001$.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¹⁾Likert 5 points scale (1-very unlikely/ 5-very likely).

²⁾Likert 5 points scale (1-very unimportant/ 5-very important).

장 높고 초과근무 시간을 가장 높게 응답한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보다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부족 및 시수 확보와 관련된 어려움에 관해서는 중학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모든 문항이 4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급식형태 및 학생 수를 고려한 인력 배치'(평균 4.72점)와 '영양교사 업무개선 및 업무감량'(평균 4.72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영양 전문직 배치'(평균 4.65점),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평균 4.65점), '교과개설 및 체계화된 교육과정 개발'(평균 4.64점),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 제고'(평균 4.54점), '교육청 차원의 영양교사 대상 체계적인 교육 시행'(평균 4.30점), '학교 내 식생활교육실 설치'(평균 4.28점), '법제화된 수업시수 확보'(평균 4.25점)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Yang(17)의 연구에서는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선행 과제로 '직무 개선 및 감축', '추가 인력 배치', '학급 수 및 학생 수를 고려한 영양교사 배치' 등이 높게 나타났고 선행연구(27,28)에서는 향후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육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1개교에 1인의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업무량 감을 위한 영양교사의 추가배치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Choi(25)는 학급의 수가 36개 이상이면 영양사의 과중한 업무를 낮추기 위해 인턴교사 채용, 교육청에 배치된 순회교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양교사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과도한 업무와 각 학교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마다 무조건 1인의 영양교사 배치는 현 제도에서는 생활교육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영양교사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영양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식생활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청에 장학사 등의 영양 전문직을 배치하고 교과개설 및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조직적이고 표준화된 식생활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식생활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영양교사 업무개선 및 업무감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응답되었고($P<0.05$), 중학교의 경우 법제화된 수업시수 확보에 대한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응답되었다($P<0.05$). 본 결과는 앞서 영양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 대해 고등학교에서는 업무량 과중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시수 확보와 관련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결과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적인 식생활교육 실시시간으로는 '식생활 관련 교과 시간'이 146명(47.0%)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140명(45.0%)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에서는 '식생활 관련 교과시간'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57.9%로 가장 높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각각 51.9%, 54.1%로 조사되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전북지역 영양교사의 식생활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29)에서도 식생활교육을 하기에 바람직한 시간으로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31.1%)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다음으로는 '관련 교과시간'(24.7%)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Yang(17)의 연구에서 적정 영양교육 수업 시간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31.1%, '관련 교과시간' 26.5%, '방과 후 활동' 4.5%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급식업무와 교육 양립을 위해 적절한 식생활교육 시수는 월별 평균 4.33시간이었고,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 '3.60시간', 중학교 '5.78시간', 고등학교 '5.08시간'으로 조사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식생활교육을 위해 유의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P<0.001$). Kim(24)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63.3%가 적합한 수업 시수로 평균 주당 '1시간'이라고 응답하였고, Yang(17)의 연구에서도 주당 '1~2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82.6%로 가장 높아 월별 수업시수를 환산하였을 때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설문 결과 업무 과중과 표준화된 교육 자료의 부재로 인한 식생활교육의 실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육부 차원의 영양교사의 업무 분석을 통한 업무개선 및 감량을 통해 식생활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영양교사의 역량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식생활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식생활교육과정을 표준화시키고 각 시도교육청에 영양교사 출신 장학사를 배치하여 장학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30)이 수립되고 식생활교육지원법(31)을 통해 학교에서 식생활교육을 권장하며 2014년부터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신설되는 등(32)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어 내실 있는 식생활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영양교사의 연수 실태 현황

영양교사의 연수 실태 현황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연수란 자기계발을 위한 모든 형태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현재 실시 중인 연수 형태 조사 결과 256명(82.3%)이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식생활교육연구회 및 동료장학을 통한 정보교환'이 101명(32.5%), '관련자격 취득 및 대학원 수강' 44명(14.2%), '세미나 참석' 44명(14.2%) 등으로 나타났다. Yang(17)의 연구에서는 본인이 하는 연수 형태로 '수업 관련 직무연수'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교육연구회 및 동료장학을 통한 정보 교환'이 33.3%로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공 관련 직무연수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영양교사가 246명(79.1%)이었고, '없다'는 의견도 65명(20.9%)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88.0%, 중학교 영양교사의 77.8%, 고등학교 영양교사의 58.1%가 전공 관련 직무연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고등학교 영양교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양교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직무연수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전공 관련 직무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 주관 기관을 설문한 결과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이 주관하였다는 응답이 114명(46.4%)으로 가장 많았고, '원격교육연수원' 51명(20.8%),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36명(14.6%),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22명(8.9%), '학회나 대한영양사협회'가 18명(7.3%)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직무연수에 참여한 기관에 대한 응답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주관교육을 받은 경우가 60% 이상으로 초등학교의 38.5%의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11.2%가 '학회나 대한영양사협회'의 교육을 참여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학회와 협회 차원에서 제공한 교육을 참여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원의 연수란 현직 교육직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적 능력과 일반적 자질을 배양하기 위한 수단이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영역이다. 하지만 현재 영양교사를 위한 전공 관련 직무연수의 운영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비정기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연수를 선택하여 참여하기란 매우 어렵다. 영양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요구 분석에 따르면 신규 영양교사 임용 후 직무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이었고, 연수내용이 영양교육 시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항목에는

Table 5. The status of nutrition teachers' training

		Total (N=311)	Type of school			χ^2 -value
			Elementary (N=183)	Middle (N=54)	High (N=74)	
Type of currently conducted training ¹⁾	Job training	256 (82.3)	165 (55.4)	42 (44.7)	49 (50.5)	—
	Exchanging information through nutrition education association group and peer study group	101 (32.5)	52 (17.4)	24 (25.5)	25 (25.8)	
	Acquiring qualification or studying in graduate school	44 (14.2)	25 (8.4)	10 (10.6)	9 (9.3)	
	Attending seminar	44 (14.2)	26 (8.7)	10 (10.6)	8 (8.2)	
	Studying text books and educational materials	36 (11.6)	28 (9.4)	4 (4.3)	4 (4.1)	
	Others	8 (2.6)	2 (0.7)	4 (4.3)	2 (2.1)	
	Experience of major related job training	Have experienced	246 (79.1)	161 (88.0)	42 (77.8)	
Never experienced	65 (20.9)	22 (12.0)	12 (22.2)	31 (41.9)		
Organization in charge of major related job training	Education center of local Education Office	114 (46.4)	62 (38.5)	26 (61.9)	26 (60.4)	22.8573*
	Distance education center	51 (20.8)	36 (22.3)	6 (14.3)	9 (20.9)	
	FDA 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6 (14.6)	28 (17.4)	6 (14.3)	2 (4.7)	
	University education center	22 (8.9)	14 (8.7)	4 (9.5)	4 (9.3)	
	Academic conference or Korean Dietetic Association	18 (7.3)	18 (11.2)	0 (0.0)	0 (0.0)	
	Others	5 (2.0)	3 (1.9)	0 (0.0)	2 (4.7)	

* $P < 0.05$, *** $P < 0.001$. ¹⁾Multiple responses.

보통 수준으로 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5). 영양교사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며 내실 있는 직무연수의 운영을 위해 영양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그에 부합하는 직무연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영양교사의 직무연수과정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영양교사의 전공 관련 직무연수 요구사항

영양교사의 전공 관련 직무연수 요구사항을 Table 6에 제시하였다. 직무연수 개설 주기에 대해 '1년'마다 개설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35명(4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년'이 105명(33.8%), '3년' 56명(18.0%), '4년' 15명(4.8%)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직무연수 개설 시기는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83명(58.8%)이었고, '학기'와 방학'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100명(32.2%), '학기 중'에 실시하는 것이 28명(9.0%)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른 직무연수 희망 시기의 차이를 보였다($P < 0.05$). 초등학교의 경우 방학 중에 직무연수를 시행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64.5%에 이르나 중학교의 경우 55.6%, 고등학교의 경우 47.3%로 나타났고, 학기 중에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비율이 중학교 14.8%, 고등학교 13.5%로 초등학교 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적정한 연수시간으로는 '30시간(2학점)'이 205명(65.9%), '15시간(1학점)' 52명(16.7%), '60시간(4학점)' 38명(12.2%), '45시간(3학점)' 16명(5.2%)으로 나타났고, 적절한 연수 주관기관으로는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이 159명

(51.2%)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부설교육연수원'이 47명(15.1%), '원격교육연수원'이 38명(12.2%), '학회나 대한영양사협회'가 34명(10.9%),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33명(10.6%)으로 조사되었다. 적절한 연수시간과 연수 주관기관에 대한 의견은 학교 유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무연수 개설 시 참여의사에 대한 문항에는 185명(59.5%)이 '적극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참여하겠다' 116명(37.3%)으로 대부분의 영양교사들이 높은 참여의사를 보였다. 전북지역 영양교사의 연수 요구도를 분석한 Park(29)의 연구에서도 연구대상 대다수(95.7%)가 연수를 개설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구과정 개설 시 적절한 시수는 '30시간'(43.9%)이 가장 많았고 연수 시기는 '여름방학'이 61.0%, '겨울방학' 30.5%, '학기 중' 8.6%로 나타났으며, Park(5)의 연구에서 연수 주관 희망기관으로 '경상북도교육연수원'(50.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대학이나 전문기관'(37.7%), '시도교육청', '학회나 대한영양사협회', '민간교육단체'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직무연수 희망교육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영양상담 기술 향상'이 4.67점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수-학습자료 개발'이 4.65점, '교수 방법'이 4.64점, '전공 관련 전문지식'이 4.36점, '영양교육 우수사례'가 4.16점으로 나타났으며 '교양 및 교직 소양'이 3.72점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Park(5)의 연구에 따르면 직무연수 내용의 중요도 순위가 '교수-학습 자료 개발', '영양상담 기술 향상'

Table 6. Nutrition teachers' opinions regarding desirable job training

		Total (N=311)	Type of school			χ^2 -value	
			Elementary (N=183)	Middle (N=54)	High (N=74)		
Opening cycle of job training	One year	135 (43.4)	72 (39.3)	28 (51.9)	35 (47.3)	6.8619	
	Two years	105 (33.8)	70 (38.3)	14 (25.9)	21 (28.4)		
	Three years	56 (18.0)	32 (17.5)	8 (14.8)	16 (21.6)		
	Four years	15 (4.8)	9 (4.9)	4 (7.4)	2 (2.7)		
Opening period of job training	During vacation	183 (58.8)	118 (64.5)	30 (55.6)	35 (47.3)	10.5042*	
	During semester	28 (9.0)	10 (5.5)	8 (14.8)	10 (13.5)		
	Both vacation and semester	100 (32.2)	55 (30.0)	16 (29.6)	29 (39.2)		
Proper time for job training	15 hours (1 credit)	52 (16.7)	30 (16.4)	10 (18.5)	12 (16.2)	6.7058	
	30 hours (2 credits)	205 (65.9)	123 (67.2)	36 (66.7)	46 (62.2)		
	45 hours (3 credits)	16 (5.2)	6 (3.3)	2 (3.7)	8 (10.8)		
	60 hours (4 credits)	38 (12.2)	24 (13.1)	6 (11.1)	8 (10.8)		
Proper organization in charge of job training	Education center of local Education Office	159 (51.2)	94 (51.4)	30 (55.6)	35 (47.3)	8.5802	
	University education center	47 (15.1)	29 (15.8)	4 (7.4)	14 (18.9)		
	Distance education center	38 (12.2)	22 (12.0)	8 (14.8)	8 (10.8)		
	Academic conference or Korean Dietetic Association	34 (10.9)	23 (12.6)	6 (11.1)	5 (6.8)		
	FDA 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3 (10.6)	15 (8.2)	6 (11.1)	12 (16.2)		
Intention of participation in job training	Intend to actively participate	185 (59.5)	120 (65.6)	28 (51.9)	37 (50.0)	13.7619*	
	Intend to participate	116 (37.3)	55 (30.1)	24 (44.4)	37 (50.0)		
	Undecided	7 (2.2)	5 (2.7)	2 (3.7)	0 (0.0)		
	Feel like not participating	3 (1.0)	3 (1.6)	0 (0.0)	0 (0.0)		
The contents, importance and desired teaching method of job training			Teaching method				
			Lecture	Discussion	Practice	Lecture+practice	Others
	Nutrition consultation skill	4.67±0.55	37 (11.9)	45 (14.5)	86 (27.6)	143 (46.0)	0 (0.0)
	Learning and teaching material development	4.65±0.58	36 (11.6)	33 (10.6)	90 (28.9)	151 (48.6)	1 (0.3)
	Teaching method	4.64±0.59	80 (25.7)	23 (7.4)	55 (17.7)	153 (49.2)	0 (0.0)
	Major related expertise	4.36±0.76	181 (58.2)	18 (5.8)	14 (4.5)	98 (31.5)	0 (0.0)
	Case study of nutrition education	4.16±0.88	121 (38.9)	57 (18.3)	42 (13.5)	91 (29.3)	0 (0.0)
General and teaching education	3.72±0.94	199 (64.0)	24 (7.7)	29 (9.3)	57 (18.4)	2 (0.6)	

* $P < 0.05$. ¹⁾Likert 5 points scale (1-very unimportant/ 5-very important), mean±SD.

이 높게 나타났고, Min(12)의 연구에서 '영양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39.0%), '영양교육을 위한 전문지식'(29.8%), '영양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17.0%)이 높게 조사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Choi(25)의 연구에서는 전문 발달 영역 중 현직연수로 가장 해보고 싶은 내용이 '효과적인 교수 기법'(54.0%), '아동상담기술'(26.1%)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영양교사들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기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교수 방법에 대한 연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하는 교육방법은 '영양상담 기술 향상',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수 방법' 문항에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각각 143명(46.0%), 151명(48.6%), 153명(49.2%)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공 관련 전문지식', '교양 및 교직 소양', '영양교육 우수사례' 문항에서는 강의

식 교육방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각각 181명(58.2%), 199명(64.0%), 121명(3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ark(5)의 연구에서 영양교사들의 직무연수 교육방법에 대한 중요도 결과는 '전공 관련 전문지식'과 '교양 및 교직 영역'은 대상자들의 70% 이상이 강의식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영양상담 기술 향상' 영역과 '교수 방법', '영양교육 우수사례' 영역에서는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형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았으며, '교수-학습 자료 개발'은 '참여실습식'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양교사에게 맞는 주제와 방법으로 정기적이고 체계화된 전공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Jung(33)과 Lee(34)의 연구에서는 영양교사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영양교사들은 '영양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의

직무를 중요한 직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영양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에서의 직무 역할의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으나 이에 따라 '영양교육 및 학생지도'의 업무 수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영양교육과 관련한 요구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Hong(35)의 선행연구는 영양교사가 급식을 관리하는 역할 외에 영양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육 및 상담과 관련된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Yang(17)은 영양교사의 94.7%가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관련 직무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영양교사들이 교육자로서 전문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수업 관련 연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나, 현재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 연수 프로그램은 영양교사의 요구 정도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양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의 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5). 영양교사는 교육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하므로 학교급식의 안전·위생관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식생활교육, 영양상담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양교사가 교사로서의 직무향상을 할 수 있는 전공 관련 직무연수를 각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공간적으로 활용이 편리한 원격연수원의 강좌 개설을 통해 다양한 연수를 쉽게 들을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개선안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승진이란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을 의미하며, 전직이란 장학사 등으로의 전문직 진출을 의미한다.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154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125명(40.2%)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영양교사들이 승진 및 전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승진 및 전직의 필요성 점수는 평균 4.37점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평균 4.56점, 고등학교 평균 4.43점, 초등학교 평균 4.30점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이 필요한 이유로는 '급식운영 및 식생활교육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라는 응답이 126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영양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가 되므로'라는 응답이 96명(31.5%)이었다.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는 68명(22.3%)이 응답을 하였고, '영양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는 14명(4.6%)으로 나타났다. 현 제도에서는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이 매우 한정적이고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기교육청 총 4곳에서 영양장학사가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급식 관리를 위

한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36) 대부분 시도교육청에는 영양장학사가 없이 식품위생직 공무원이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급식 관련 업무를 맡아 하는 실정이다. 또한 현 제도에서 영양교사는 1급·2급으로 자격 구분만 되어 있고(6) 정교사 자격 기준과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교감과 교장으로의 승진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이다. 서울지역 영양교사의 직무에 대한 기대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Kim(15)의 연구에 따르면 인사승진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서 2.41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Lee(16)의 연구에서도 영양교사로서의 승급, 승진, 표창제도에 대해 42.3%가 '불만족', 35.9%가 '보통', 15.4%가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승진 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37)에서는 승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승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교사일수록 직무만족이 높으며, 승진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많은 교사일수록 충성심, 자발성, 가치 수용성이 높다고 하였다. 영양교사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의 시행 및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6개 문항 중 4개의 문항이 평균 4.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 교과교사에 비해 승진할 기회가 전혀 없다' 문항이 4.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영양교사가 상위평정을 받을 수 있는 보직교사에 임명되기 힘들다'가 4.64점, '영양교사는 정규교과가 없다'가 4.59점, '학교구성원들의 영양교사 승진 및 전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가 4.52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교과교사와 통평평정을 하지 않기에 승진의 기회가 없다' 문항은 3.84점, '타 교과교사에 비해 직무와 관련된 각종 연수 참여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가 3.76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 유형에 따라 타 교과교사에 비해 낮은 승진기회에 대해 초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초등학교의 영양교사가 다른 학교의 영양교사에 비해 승진기회가 적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P < 0.01$), 정규교과가 없는 실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정규교과로의 개설에 더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며($P < 0.05$), 학교구성원들의 영양교사 승진 및 전직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대한 문항은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나 중학교에서 영양교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가장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 < 0.05$).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연구한 결과 모든 문항이 평균 4.3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교육청에 영양 전문직의 임용기회 확대' 문항이 4.6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4.52점, '학교구성원들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4.50점, '영양교사의 승진을 포함하

Table 7. The awareness of nutrition teachers' promotion and transfer and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Total (N=311)	Type of school			χ^2 -value /F-value
		Elementary (N=183)	Middle (N=54)	High (N=74)	
Very necessary	154 (49.5)	84 (45.9)	32 (59.3)	38 (51.4)	
Necessary	125 (40.2)	72 (39.9)	20 (37.0)	32 (43.2)	
Indifferent	26 (8.4)	22 (12.0)	2 (3.7)	2 (2.7)	10.3799
Unnecessary	6 (1.9)	4 (2.2)	0 (0.0)	2 (2.7)	
Very unnecessary	1 (0.0)	0 (0.0)	0 (0.0)	0 (0.0)	
Average	4.37±0.72	4.30±0.76 ^b	4.56±0.57 ^a	4.43±0.68 ^{ab}	3.10*
For systematic foodservice management and nutrition education	126 (41.3)	72 (40.2)	30 (55.6)	24 (33.3)	
For nutrition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96 (31.5)	58 (20.7)	12 (22.2)	26 (36.1)	
For development of overall school foodservice	68 (22.3)	37 (20.7)	10 (18.5)	21 (29.2)	11.2513
For nutrition teachers' motivation	14 (4.6)	11 (6.2)	2 (3.7)	1 (1.4)	
Others	1 (0.3)	1 (0.6)	0 (0.0)	0 (0.0)	
No opportunity to be promoted compared to other subject teachers	4.67±0.55	4.75±0.47 ^a	4.56±0.70 ^b	4.54±0.60 ^b	5.14**
Hard to become a grade head teacher who has advantage of better evaluation	4.64±0.54	4.62±0.58	4.74±0.44	4.59±0.49	1.30
No regular classes for nutrition teachers	4.59±0.59	4.62±0.60 ^a	4.70±0.54 ^a	4.42±0.60 ^b	4.44*
Lack of awareness of school members regarding nutrition teachers' transfer and promotion	4.52±0.66	4.53±0.71 ^{ab}	4.70±0.46 ^a	4.35±0.63 ^b	4.61*
Separated evaluation with other subject teachers	3.84±1.08	3.74±1.17	3.93±2.00	3.97±0.91	1.66
Fewer chances for participating in job related training than other subject teachers	3.76±1.12	3.71±1.15	3.74±1.22	3.88±0.98	0.59
Increa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nutrition professions in Education Office.	4.69±0.55	4.67±0.60 ^b	4.85±0.36 ^a	4.61±0.49 ^b	3.34*
Increasing job related training opportunities	4.52±0.64	4.55±0.63	4.41±0.69	4.53±0.60	1.00
Increasing awareness of school members regarding nutrition education	4.50±0.63	4.51±0.64	4.59±0.50	4.41±0.68	1.48
Revising promotion regulation to allow nutrition teachers' promotion	4.50±0.64	4.46±0.69	4.59±0.50	4.53±0.58	0.92
Creating new nutrition education curriculum independent from regular education course	4.41±0.84	4.33±0.92 ^b	4.70±0.54 ^a	4.39±0.77 ^b	4.19*
Providing same opportunities to nutrition teachers in assigning a grade head teacher	4.35±0.72	4.33±0.79	4.37±0.68	4.35±0.58	0.06

* $P<0.05$, ** $P<0.01$.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¹⁾Likert 5 points scale (1=very unlikely/ 5=very likely).²⁾Likert 5 points scale (1=very unnecessary/ 5=very necessary).

는 승진규정의 개정' 4.50점, '정규 교육과정에 독립된 식생활교육과정 신설(교과신설)' 4.41점, '보직교사 임명 시 동일한 임명기회 제공'이 4.35점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라 승진 및 전직 개선방안으로 교육청에 영양 전문직의 임용기회 확대와 식생활교육 과정 신설에 대해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P < 0.05$). 특히 식생활교육 과정 신설에 대한 중학교의 높은 요구는 본 연구의 Table 4에서 보인 중학교의 경우 법제화된 시수 확보에 대한 문제인식과 수업시수 확보에 대한 높은 요구도와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의 영양교사가 다양한 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 등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영양상담 및 식생활지도 계획을 수립·장학하고, 영양교사의 교수-지도법에 대해 조언하며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교육전문직의 필요가 절실하다. 타 교과와 형평성에 맞도록 교사 수에 비례하는 영양교사 출신의 영양 전문직을 조속히 배치하여 표준화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등 영양교육의 체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수령 현황 및 인식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수령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Table 8과 같다. 2014년 3월부터 각 학교의 영양교사에게 월 3만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며(32), 응답자 중 297명(95.5%)이 교직수당 가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였고, '수령하고 있지 않다'는 영양교사는 14명(4.5%)이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에 대해 교직수당 가산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227명(73.0%)으로 많았고, 적정한 교직수당 가산금으로는 평균 월 72,465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로 수당이 신설되어야 할 분야는 전체적으로 '2~3식에 대한 수당'이 169명(54.5%)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위험수당'이 115명(37.1%), '대규모학교 운영수당' 18명(5.8%), '기타' 8명(2.6%)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수당이 신설되어야 할 분야에서 학교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위험수당'이 추가로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7명(53.3%)으로 가장 많아 중학교 14.8%, 고등학교 13.5%와 차이를 보였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2~3식에 대한 수당'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0명(74.1%), 62명(83.8%)으로 가장 많아 초등학교의 36.8%와 비교하여 높게 응답되었다($P < 0.001$).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는 학교급식을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1). 그러므로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식, 석식 및 방학 급식은 법적으로 학교급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양교사들은 학기 중의 조식 및 석식 뿐 아니라 방학급식의 경우도 별도의 수당이나 보상 없이 책임감 하에 자발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계획에 의해 추가로 시행되는 급식에 대해서는 보충수업으로 인정하여 교과교사의 보충수업비에 따르는 수당의

지급과 보조인력 배치 등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양교사 성과 상여금 수령 현황 및 인식

영양교사 성과 상여금 수령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 결과를 Table 9에 제시하였다. 2012년~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영양교사 개인성과 상여금 등급 현황을 제시하였는데 'B등급'을 받은 영양교사가 2011년 200명(75.2%), 2012년 190명(68.1%), 2013년 188명(65.5%)으로 대부분의 영양교사가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을 받고 있었다. 'S등급'을 받은 비율은 2012년 11명(4.1%), 2013년 14명(5.0%), 2014년 19명(6.6%)이었고, 'A등급'은 2012년 55명(20.7%), 2013년 75명(26.9%), 2014년 80명(27.9%)이었다. 이는 2014년 교육부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의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에 크게 벗어나는 결과로 성과 상여금 지급에 있어 영양교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Kim (38)의 연구에 의하면 영양교사들의 개인성과 상여금 등급을 살펴본 결과 'B등급'인 교사가 6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A등급' 29.3%, 'S등급' 2.5%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성과급 평가 기준 대상자를 살펴보면 일반교사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은 영양교사가 75.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일반교사와 분리하여 비교교교사를 대상으로 평가받은 경우가 14.6%, 일반교사와 분리하여 영양교사에게 맞는 기준으로 평가받은 경우가 10.2% 순으로 나타났다(38). 즉 대부분의 영양교사들이 일반 교과교사들과 똑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영양교사가 학교에서 부장교사나 담임교사가 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학교 유형에 따른 결과를 보면, 2012년 중학교에서 S등급을 받은 영양교사의 비율이 8.3%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에서 B등급을 받은 영양교사의 비율이 82.0%로 가장 높았으나 2013년 S등급을 받은 고등학교 영양교사의 비율이 중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2014년은 S등급을 받은 영양교사의 비율이 고등학교에서 8명(14.0%)으로 가장 높고 중학교가 2명(3.8%)으로 가장 낮아졌다. 2014년 고등학교에서의 S등급 비율은 14.0%, A등급은 21.1%로 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2014년 교육부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의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성과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영양교사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항이 5점 만점에 4.8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영양교사가 교과교사와 같은 성과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문항에는 1.49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 체계에서 영양교사의 업무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Table 8. The status and opinions of teaching allowance of nutrition teachers

	Total (N=311)	Type of school			χ^2 -value
		Elementary (N=183)	Middle (N=54)	High (N=74)	
The status of receiving teaching allowance of nutrition teachers	Receiving	297 (95.5)	50 (92.6)	70 (94.6)	0.3989
	Not receiving	14 (4.5)	4 (7.4)	4 (5.4)	
Awareness of the amount of teaching allowance	Proper	84 (27.0)	12 (22.2)	28 (37.8)	0.0538
	Improper	227 (73.0)	42 (77.8)	46 (62.2)	
Improvement	Proper amount of teaching allowance (won)	72,465.14± 25,041.35	68,000.00± 27,287.64	72,500.00± 22,389.33	0.82
	Where additional allowances need	169 (54.5) 115 (37.1) 18 (5.8) 8 (2.6)	67 (36.8) 8 (14.8) 4 (7.4) 2 (3.7)	62 (83.8) 10 (13.5) 0 (0.0) 2 (2.7)	

*** $P<0.001$.

Table 9. The status of performance based compensation of nutrition teachers and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Total (N=311)	Type of school			χ^2 -value /F-value	
		Elementary (N=183)	Middle (N=54)	High (N=74)		
The status of nutrition teachers' evaluation for performance based compensation in recent 3 years	In 2012	S level	11 (4.1)	4 (8.3)	0 (0.0)	9.7450*
		A level	55 (20.7)	12 (25.0)	9 (18.0)	
		B level	200 (75.2)	32 (66.7)	41 (82.0)	
	In 2013	S level	14 (5.0)	4 (7.7)	4 (7.5)	4.5007
		A level	75 (26.9)	16 (30.8)	10 (18.9)	
		B level	190 (68.1)	32 (61.5)	39 (73.6)	
In 2014	S level	19 (6.6)	2 (3.8)	8 (14.0)	5.5123	
	A level	80 (27.9)	20 (38.5)	12 (21.1)		
	B level	188 (65.5)	30 (57.7)	37 (64.9)		
The awareness of performance based compensation ¹⁾	Developing specific criteria applying nutrition teachers' work characteristics is required.	4.80±0.64	4.70±0.82 ^a	4.84±0.37 ^a	0.82	
	Currently nutrition teachers' works are evaluated fairly.	1.52±0.87	1.67±0.91 ^a	1.78±0.94 ^a		
	It is fair to be evaluated based on same criteria with other subject teachers.	1.49±1.10	1.36±0.98 ^b	1.86±1.31 ^a		
How to improve performance based compensation system for nutrition teachers	Developing criteria considering nutrition teachers' work characteristics.	162 (52.1)	18 (33.3)	36 (48.7)	30.8367***	
	Enhancing evaluators' awareness about nutrition teachers' works and speciality.	67 (21.6)	14 (26.0)	24 (32.4)		
	Evaluation is conducted among nutrition teachers.	56 (18.0)	18 (33.3)	4 (5.4)		
	Evaluation is conducted among non-subject teachers in schools.	25 (8.0)	4 (7.4)	10 (13.5)		
	Others	1 (0.3)	0 (0.0)	0 (0.0)		

* $P<0.05$, ** $P<0.01$, *** $P<0.001$.

^{a)}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b)}Likert 5 points scale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mean±SD.

문항은 1.52점에 불과했다. 학교 유형에 따라 영양교사의 교과교사와 같은 성과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제도에 대해 초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고($P<0.01$), 현재 성과급제도 내에서 영양교사의 업무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P<0.01$).

영양교사 성과급제도 개선 방안으로 '영양교사에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162명(52.1%)으로 가장 많았고, '평가자의 영양교사 직무 및 전문성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명(21.6%), '영양교사들만 따로 모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56명(18.0%), '학교 내 비교교사들만 따로 모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25명(8.0%)이었다. Kim(38)의 논문에서도 성과급 등급이나 평가점수가 본인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유가 '영양교사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 기준'이라는 응답이 82.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과급제도의 개선으로 영양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유형에 따른 영양교사 성과급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평가자의 영양교사에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도가 초등학교는 59.0%, 고등학교 48.7%, 중학교 33.3%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평가자의 영양교사 직무 및 전문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대한 요구는 고등학교에서 32.4%로 초등학교 15.9%, 중학교 26.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교사들만 따로 모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중학교에서 33.3%로 초등학교 18.6%, 고등학교 5.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요 약

본 연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311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영양교사 교직 수행실태 및 직무 수행에서 전반적인 어려움과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영양교사직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양교사의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에 대해 96.1%의 영양교사가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는 학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특히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20.0%가 월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63.5%가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초등학교 7.1%, 중학교 3.7%와 크게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영양교사의 식생활 운영 실태와 식생활교육 인식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식생활교육 시행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P<0.001$), 식생활교육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서 표준화된 교육자료 및 지침서 부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교육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에서는 업무과다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고($P<0.001$), 학교 내에서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시수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중학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영양교사의 연수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영양교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양교사보다 유의적으로 직무연수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P<0.001$), 직무 연수 개설 시기에 대해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기 중에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비율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적정한 연수시간과 연수 주관기관에 대한 의견은 학교 유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영양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처우를 조사하기 위하여 승진제도, 가산금 및 성과 상여금 수령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6개 문항 중 4개의 문항이 평균 4.5점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타 교과교사에 비해 승진할 기회가 전혀 없다' 문항이 4.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문항은 타 교과교사에 비해 낮은 승진기회($P<0.01$), 정규교과가 없음($P<0.05$), 학교구성원들의 영양교사 승진 및 전직에 대한 인식 부족($P<0.05$)으로 조사되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에 대해 교직수당 가산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227명(73.0%)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로 수당이 신설되어야 할 분야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위험수당'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2~3식에 대한 수당'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다($P<0.001$). 2012년~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영양교사 개인성과 상여금 등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을 받은 영양교사가 2011년 75.2%, 2012년 68.1%, 2013년 65.5%로 조사되었다. 2014년 고등학교에서의 S등급의 비율이 14.0%, A등급 21.1%로 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2014년 교육부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의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4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FERENCES

1. Kim JS. 2008. Development plan for South Korea's elementary school's nutrition education through case studies of U.S.A and Japan. *M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 12-28.
2. Kim MH, Lee KA. 2003. A comparison of the perceptions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of the effects of school lunch programs on children's dietary behaviors. *J Korean Soc Food Sci Nutr* 32: 636-644.
3. Youn JH. 2006. The core of school foodservice development policy, nutrition teacher policy in Japan. *Educational Pol-*

- icy Forum 128. http://edpolicy.kedi.re.kr/EpicForum/Epic/EpicForum02Viv.php?Ac_Num0=5874&Ac_Code=D0010201 (accessed Jul 2015).
4. Joung CW, Ha GH. 2002. A study on the activating schemes of the dietary education in Korea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J of Korean Teacher Educ* 19: 213-233.
 5. Park KS. 2011. The analysis of the training needs for the specialty enhancement of nutrition teachers. *M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san, Korea. p 4,30-31, 38-39,54.
 6. The Office of Legislation. 2012.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1.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A%B5%90%EC%9C%A1%EB%B2%95&x=0&y=0#liBgcolor16> (accessed Jul 2015).
 7. The Office of Legislation. 2010. School Meals Act. Article 7.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D%95%99%EA%B5%90%EA%B8%89%EC%8B%9D%EB%B2%95&x=0&y=0#liBgcolor0> (accessed Jul 2015).
 8. Kim HH, Park YH, Shin EK, Shin KH, Bae IS, Lee YK. 2006. Students' and parents' perceptions of nutritio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J Korean Soc Food Sci Nutr* 35: 1016-1024.
 9. Park YH, Kim HH, Shin KH, Shin EK, Bae IS, Lee YK. 2006. A survey on practice of nutrition education and perception for implementing nutrition education by nutrition teacher in elementary schools. *Korean J Nutr* 39: 403-416.
 10. Yun ES. 2010. (The) current status of nutrition education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nutrition teachers in Chungcheongnamdo. *M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p 33.
 11. Park SM. 2012. (A) survey on nutrition education at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 area, and proposal for a nutrition class model. *M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 1-82.
 12. Min SJ. 2010. An analysis of demands for improving teaching and learning competence of nutrition teachers-focused on Gangwon province. *M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p 16,31.
 13. Hwang O. 2012. The actual condition and needs on nutritional education among school nutrition teachers in Chonbuk province. *M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p 16.
 14. Kim HY, Khil J. 2012. Job analysis and satisfaction of dietitians·nutrition teacher in school foodservice by school type in Gwangju and Jeonnam area. *Korean J Nutr* 45: 274-282.
 15. Kim JS. 2012. Job expectation and job satisfaction of nutrition teachers in Seoul area. *M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 18,25-26,50.
 16. Lee JH. 2011. The study of the work satisfaction and status of nutrition education as nutrition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in Gyeongnam area. *M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p 54.
 17. Yang SJ. 2013. A study on teaching status of nutrition teachers for elementary school and the revitalization of nutrition education. *M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p 34-35,41,49-50,53,55-60.
 18. Choi JI. 2001. The study of nursing teacher qualification and promotion. *M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p 67-70.
 19. Cho DS. 2012. The job characteristics of nutritional teacher about one, two, or three times food serving schools. *M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Korea. p 20-21, 26-28.
 20. Yeo SH. 2012. The actual condition of nutrition education of nutrition teacher and research of duty change and job stress: focused on Kyung-Sang-Nam-Do region. *M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p 39-43.
 21. The Office of Legislation. 2010.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Meals Act. Article 2, Article 8.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A%B5%90%EC%9C%A1%EB%B2%95&x=0&y=0#liBgcolor1> (accessed Jul 2015).
 22. Jeon EJ. 2009. Nutrition teacher's status and perception of nutrition education after the placement of nutrition teachers in Jeonbuk province. *M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p 15-17,30-31.
 23. Park EH. 2015.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perception on dietary life education and nutrition counseling of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in Jeju. *M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p 31-32,41-42.
 24. Kim HS. 2012. A survey on nutrition education activities by nutrition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in Incheon area. *M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p 12-14,21,28-29,32-33.
 25. Choi MO. 2010. (The) study of the expertise increase about the nutrition teachers' teaching profession. *M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p 34,44,49,55.
 26. Kim MS, Kim HJ, Lee YE. 2013. Operation and perception on dietary life education and nutrition counseling of elementary school in Chungbuk province. *J Korean Soc Food Sci Nutr* 42: 2049-2067.
 27. Jeong SH. 2010. A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nutrition education activities by nutrition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s in Seoul. *M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Korea. p 38-39,42-43,51-52.
 28. Shin KH, Shin EK, Park YH, Kim HH, Bae IS, Lee YK. 2006. A survey on the perceived importance and difficulty to set up the job duties of nutrition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 *J Korean Diet Assoc* 12: 105-117.
 29. Park E. 2014. Operation and training demand on dietary life education of nutrition teachers in Jeonbuk province. *Korean J Human Ecol* 23: 149-161.
 30. The Office of Legislation. 2013.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1.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A%B5%90%EC%9C%A1%EB%B2%95&x=0&y=0#liBgcolor0> (accessed Jul 2015).
 31. The Office of Legislation. 2011. Support of Diet Education Act. Article 26.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A%B5%90%EC%9C%A1%EB%B2%95&x=0&y=0#liBgcolor0> (accessed Jul 2015).
 32. The Office of Legislation. 2015. Regulations on the public official allowance, etc. Article 14.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x=17&y=17#AJAX> (accessed Jul 2015).
 33. Jung SH. 2008. A study on education demand and change of duties of nutrition teachers in of school food service. *M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Korea. p 45-47.
 34. Lee KE. 2009. Requirements and self-evaluation of competencies necessary to be effective nutrition teachers per-

- ceived by school food service dieticians. *J Korean Soc Food Sci Nutr* 38: 626-635.
35. Hong SR. 2008. Development of a desirable role of nutrition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 *M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p 48.
 36. FSNews. 2015. First appointment of school supervisor from nutrition teacher.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38> (accessed Jul 2015).
 37. Kim IS. 1998. Effect of promotion desir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M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p 1-55.
 38. Kim HJ. 2012.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nutrition teachers and the improvement of the job evaluation system in Incheon. *M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p 42-44,46-49.